

우리은행 광주·전남본부, 전남공동모금회와 사회공헌 협약



우리은행 광주·전남영업본부(본부장 문홍식)가 최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고, 성금 450만원과 손소독제 500개(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은행은 광주·전남영업본부와 19개 지점에 모금함을 비치해 기부금을 모은다. 성금과 손소독제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굿네이버스 광주전남본부, 광주교육청에 희망상자 150박스



굿네이버스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병기)가 최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에 GS건설·남촌재단이 함께하는 '포근포근 희망상자' 150박스를 전달했다.

농협 광주본부·서창농협 임직원, 폐농약병·페비닐 수거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강형구)와 서창농협(조합장 김명열) 임직원 20여명, 농가주부모임 40여명은 최근 광주지역 20여 농가를 찾아 폐농약병과 페비닐 800kg을 수거했다.

정부 '민주화에 헌신' 천주교 김병상 몬시뇰에 국민훈장 추서

정부가 민주화와 사회운동에 평생 헌신하다 선종한 천주교 김병상 몬시뇰(향년 88세)에게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을 추서했다.



운동에 큰 공적을 세웠다. 한편 몬시뇰은 주교 품을 받지 않은 가톨릭 고위성직자에게 부여하는 칭호로, 고인은 200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부터 몬시뇰 칭호를 받았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1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고(故)김희용·박정희씨 장녀 국민 군, 이계양(전 광주YMCA 이사장)·강두희씨 장녀 새움 양=5월 9일(토) 오후 1시 30분 광주 웨딩그룹 위더스 3층 펠리체룸.

일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연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

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연제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동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무료상담(음주,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치매, 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 정신건강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 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혼가정아

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모집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부 010-5522-97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 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인생이유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년준비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아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글,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부음 ▲원용흥씨 별세, 봉회(기획재정부)·경희(오성정보통신)·나미씨 부친상, 정수진(통계청)·박선영씨 시부상, 노선오씨 빙부상=발인 29일(수) 오전 8시 강진영락장례식장 1분향소 061-433-3950.

“한달간 1만3000여 사찰서 국난 극복 기도 국민 고통 함께 나누는 것이 종교의 역할”

내일 '부처님 오신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대담

연등회·봉축법회 한달 연기 결정
코로나 계기 인간 이기심 되돌아와야
새로운 일상과 삶의 방식 고민 필요
코로나 의료진에 치유의 공간제공
'토닥 토닥 템플스테이' 운영

4월 30일은 부처님오신날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협력하기 위해 부처님오신날 공식 봉축법회를 사실상 사상 최초로, 5월 30일로 연기했다. 조계종 등 불교계와 불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범적 대응을 보이고 있어 국민적 칭송을 받고 있다. 광주일보 등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9개 신문사가 가입된 한신협(한국지방신문협회)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국 불교의 대표적 종단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대담을 가졌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재앙이 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의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의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듬어 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만의 이익을 위하여 못 생명들을 위협하고, 개인의 탐욕에 몰려 공동체를 훼손해 왔던 우리 모두의 삶과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안전하게 살아가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일상과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 맞서 봉사하면서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입은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누구보다 헌신적 희생을 해 주신 의료진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치유의 공간과 시간을 드리고자 '토닥 토닥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치유'의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 부처님오신날인 4월 30일 부터 한 달동안 1만3,000여 사찰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특별기도'를 진행할 것입니다. 5월 30일에는 전국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 및 국민의 안전과 국난극복을 위한 법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 불교계는 법회 중단 등을 포함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칙을 잘 지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다른 종교단체 보다도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법회와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또 국가무형문화재인 연등회와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연기라는 힘든 결정도 했습니다. 법회 중단으로 대부분의 사찰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함에도 이를 강행한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국민들께서 감당하고 짊어져야 할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종교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불교 지도자의 역할과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 했습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다



른 말로는 '자리타라 성불제중'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즉, 중생과 함께 한다는 말로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제일 중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합의 리더십입니다. 나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속에서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지도자의 리더십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임동욱 선임기자 tuim@

광주 동구, 빈 점포에 청년창업 지원 상생 협약



광주 동구(정장 일택)가 최근 '빈집 청년창업 채용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비 청년창업자와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계림1동 1-2통 일대 빈집이나 빈 점포를 활용,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청년창업을 지원해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3월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청년창업자 10팀을 예비 선발한 뒤, 창업아이템과 부합한 빈집·빈점포 매칭 절차를 마친 5팀의 예비청년창업자와 약정식을 열었다. 청년 창업자들은 한 달여 동안 공간 리모델링·상품개발 등 창업 준비를 거쳐 ▲한국 패자제 및 가족 자투리를 활용한 액세서리 제작 ▲작가 레지던스와 연계한 아트상품 제작 ▲캘리그래피 대관 및 예술품 전시기획 ▲시그니처가 있는 디저트 카페 ▲커피테이이 함께한 카페 등의 창업아이템을 6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창업자에게는 임차료·재료비·상품개발비 등 초기 창업자금 최대 1260만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청년센터, 청년 575명에 식료품 박스 지원



광주청년센터(센터장 박수민)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 청년들의 생활안정망을 구축하고자 광주 지역 청년 575명에게 식료품(1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지원은 광주청년 식료품 지원 사업 '더 든든함'을 통해 진행됐으며, 광주시세계와 남도맛집 협동조합이 기금과 자원을 지원했다. 사업은 광주청년센터가 자체 진행한 '광주청년 안부묻기 캠페인'이 바탕이 됐다. 캠페인을 통해 급여 감소, 실업,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채용·시험 연기, 행사 중단, 도서관 폐쇄 등으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파악했다. 이어 청년들의 식비를 줄이는 등 식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든든함'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박수민 센터장은 "더 든든함"이 긴급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이 흔들리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위해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살아가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